

성차별사회에서 자란 50대 어린이집 원장의 자문화기술지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를 중심으로-

김옥경*, 윤은숙
안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An autoethnography of a nursery principal in her fifties growing up with experiences of gender discri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rik Erikson's psychosocial development-

Ok Gyeong Kim*, Eun Suk Yo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유년 시절 경험한 성차별이 한 개인의 성장과 일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그가 성인이 된 후 달라지는 남녀차별인식에 어떻게 대응, 적응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자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고, 자아 정립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에세이, 자기 회상 자료, 자기 성찰 자료, 가족과의 인터뷰 등을 수집, 선별하여 종단 코딩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유아시절 경험한 성차별은 기억의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오랜 시간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성인이 된 후, 변화하는 사회와 새로운 가족구성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과 학습으로 일정 이상의 트라우마 극복은 가능했지만 완전한 치유 및 적응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의 문제점을 통해 한 개인의 발달을 알아보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다른 문제들을 접목해 고민해볼 수 있는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심리사회발달단계, 에릭슨, 자문화기술지, 성차별, 양성평등

Abstract This study is an autoethnography from the perspective of Erikson's psychosocial development to investigate how gender discrimination has affected the development of one person. Research materials were diaries, essays, phone interviews, and interviews. As a result,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wounds suffered during infancy persisted for a long time. After growing up, although it was possible to change one's ideas of gender discrimination by learning, it seemed difficult to overcome from trauma completely.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to show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through a social problem and can be expanded to research the same subject by combining other categories.

Key Words : Psychosocial development, Erikson, Autoethnography, Gender discrimination, Gender equa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자인 나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다. 딸은 이십대 후

반으로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같은 전공으로 영국에서 석사 유학도 했다. 소설가가 되는 정도라 일컬어지는 등단은 하지 못했다. 매일 방에 틀어박혀 글을 쓴다. 아이는 취업도, 연애도 하지 않는다. 딸은 오늘도 소

*Corresponding Author : Ok Gyeong Kim(lovekid1198@hanmail.net)

Received July 31,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August 9,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설을 쓴다.

나는 1960년대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태어난 여자다. 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딸이라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고, 누나라서 남동생의 학비를 뒷바라지해야 했다. 나름대로 깨어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뿌리 깊이 자리한 가부장제 사회는 나를 아내 그리고 엄마라는 미명으로 묶으려 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한다.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더 이상 남녀를 파란색이나 분홍색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여자아이들에게 예쁘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안전하다, 말을 잘 듣는다와 같은 평가도 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다. 교육자로서는 꽤나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딸이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가끔 이해하지 못한다.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 1902-1994)은 인간의 성격이 발달하는 과정을 여덟 단계로 구분하였다. Capps는 이 에릭슨의 인간발달이론을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했는데, 그 중 두 번째 특징을 갈등 구조의 상호작용이라 했다[1]. 각각의 발달단계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성장은 높은 비율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때 부정적인 측면은 제거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복잡성과 함께 사회의 역동성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력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남아선호사상과 남녀차별, 가부장제가 만연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년 시절의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으며 달라지는 관점에 어떻게 적응해나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인물, 소설, 그림, 무용, 종교, 상담 등의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는 연구는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녀차별이라는 사회문제를 에릭슨의 여덟 단계에 연계해 알아보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에릭슨의 이론을 사회적 심리 단계 변화 지표로 사용하여 본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인 나의 삶을 에릭슨의 여덟 단계에 직접 투영하여 관찰하는 자전적 탐구, 즉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통해 연구할 것이다. 특히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와 자문화기술지 방식의 공통된 특징인 사회와 인간의 관계성을 통해 한 인물

이 겪은 남녀차별이 아동발달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과거 만연했던 사회구조적 문제의 피해자가 개인적 경험들과 그로 인해 정립된 자아, 또 교육과 공부를 통해 그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50대 여성 대다수가 겪었을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해 직면했을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문제들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인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어 본 연구자와 비슷한 입장의 이들을 위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자란 50대 여성은 자아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의 관점에서 자아 정립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둘째, 위의 경험이 나의 교육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연구방법

2.1 자문화기술지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전적 이야기를 탐구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2].

자문화기술지는 최근 흥미롭고도 유망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여겨지는데, 한 인물이 제공하는 개인적 목소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회적인 이해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이다[3]. 이는 개인이 성장할 때 필연적으로 사회, 문화, 정치 등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해 자아 및 가치관을 형성해서 그러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삶을 근거로 위의 예시를 역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문화기술지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자아를 이해하여 개인이 타자와 빚어내는 관계성 및 상호작용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다[4]. 이 때 발생하는 주관성은 연구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독자들은 연구에 사용된 사례들을 개개인의 삶과 대조하여 이론적 타당성을 증명해낼 수 있다[5].

2.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남녀차별을 겪으며 유년기를 보낸 50대 여성 어린이집 원장의 과거 경험과 심정,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주를 이룬다. 자매들과의 전화, 연구자의 딸과의 인터뷰, 과거 작성하였던 에세이 등 역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개인적인 기억 자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6].

다음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1. Research data

| Category | Duration | Figure |
|-----------------------|------------------------------|--------|
| Essay | June, 2008 - December, 2008 | 2 |
| Diary | September, 2016 - June, 2018 | 5 |
| Self-reflective essay | June, 2017 - June, 2018 | 103 |
| Interview | June, 2017 - December, 2017 | 12 |

위의 자료들은 하나로 수집하여 종단 코딩(Longitudinal cod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자칫 개인적으로만 비춰질 수 있는 자료들 및 인터뷰 축어록은 인터뷰 참여자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2.3 연구타당도

Duncan은 타당성과 개인적 이야기 묘사에 대해 여섯 가지 특징을 내세워 자문화기술지의 질을 입증했다[7].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범위, 수단의 유용성, 구성 타당성, 외부 타당성, 신뢰성, 학구성. 본 연구 역시 Duncan의 여섯 가지 특징을 충실히 따르도록 했다. 연구 범위는 본 연구자와 연구자를 잘 알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경험으로 제한하였다. 유용성은 연구에 참여할 주변인들에게 본 연구를 소개, 확인받았으며 충분한 대화와 그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였다. 부족한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을 대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의 타당성을 취하려 했다. 또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육학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다. 나의 경험이 문화적 특성과 공유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적극 활용하였고, 연구 결과 역시 연구 참여자들과 재논의를 통해 신뢰도

를 높여려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경험을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와 접목시켜 분석함으로써 타자와 사회 문화에 연결시키고자 했다.

3. 연구결과

3.1 제 1단계 : 신뢰감 대 불신감

“차라리 네게는 죽음이 행복일지도 모르겠다.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외할머니가 미역을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는 나를 이불 속에 파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울었다고 했다. 나도 살려 달라 울었겠지.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내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엄마를 때렸다고 했다. “죄 받는다. 죄 받는다.” 내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등과 엉덩이는 화상으로 멍그러져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2008년 12월에 작성한 에세이)

3년. 엄마는 아들을 원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상처만이 가득한 관계. 나는 흔히 말해 축복받지 못한 아이였다. 엄마는 나를 키울 의지가 없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아랫목에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나를 버렸다.

외할머니는 나를 구해 곧장 10리 너머의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했다. 의사는 내 상태를 보고는 인명재천이라, 신생아라 수술도 못하니 일주일 후에도 살아있다면 다시 데려오라 했다. 할머니는 나를 껴안고 다음 생이 있다면 부잣집에 태어나라 기도했다. 그게 내가 태어난 날이다.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나는 일주일 후, 마취도 못한 채 엉덩이 수술을 했다. 입에서는 거품을 뿜었다 했다.

에릭슨은 출생 후 1년까지를 어린이가 어머니와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기로 규정하며 신뢰감과 불신감은 이 때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나아가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의 성공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했다[8].

기억이 있을 리는 없지만 실제로 나는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으로 자라지 못했다. 엄마의 자리는 외할머니가 대신했지만 이미 한 번 부정당한 삶은 언제나 날이 서있었다. 남편은 이런 나 때문에 친구 여럿을 잃을 뻔 했다.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을 해보자, 등등의 모든 거래를 처했

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불안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세상에, 특히나 엄마에게.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단계 중 제 1단계에서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게 고작 우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주입식 교육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번 너리에 박힌 세상은 잘 변하지 않는다.

3.2 제 2단계 :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감

에릭슨은 각 발달단계가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즉, 생애 초기의 발달 단계는 제 2단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방적 태도를 좌우하게 된다. 이 때 겪는 좌절은 동일성과 연속성의 경험으로 축적되며 다음 단계에서 아이가 대부분의 시련을 이길 수 있게끔 한다고 했다[9].

어린이 개인에 초점을 두자면,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해 독립적 행동을 시작한다.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식사, 탈의, 대소변 가리기 등이 예가 된다. 이 미숙함을 부모가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유아는 사회의 기대나 압력을 배우게 된다. 부모의 도움으로 어린이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달하지만 반대로 과잉 통제하거나 비난하면 수치심과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또 자신을 강하지 않고 통제받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 [10].

둘째 언니: 병원만 다녔지, 뭐. 이만한 주사가
특히 고름만 나오고, 말도 못했어.
(2017년 12월 30일에 둘째 언니와의 인터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엉덩이가 말썹이었다.

둘째 언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
조그만 애가 얼마나 아팠겠냐. 그러니까 밤낮으로
울기만 하고.
(2017년 12월 30일에 둘째 언니와의 인터뷰)

그 때의 나를 지배하는 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떡 장사를 하는 엄마도, 쟁쟁대는 내 입에 밥을 넣어주는

외할머니도 아니었다. 상처. 그리고 후유증. 나는 대소변을 가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몸이 덜 아픈지를 먼저 배워야 했는지도 모른다. 둘째 언니는 내가 겨우 앉아있나 싶으면 그새를 못 참고 일어나 울었다고 했다. 당연히 밥도 내 손으로 못 먹었다.

덕분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삶에 대한 애착, 그 이상한 독립심이 생긴 것 같다. 반대로 이 때의 내 의지는 무력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엄마는 동생을 임신했다.

3.3 제 3단계 : 주도성 대 죄책감

다섯 살의 나는 여전히 바닥에도 의자에도 앉지를 못했다. 매일 아파서 울었다. 큰 언니는 그런 나를 껴안고 “이 불쌍한 것. 커서 어떻게 살래.” 함께 울었다. 사람들은 나를 꾸짖었다. 그만 울어라. 못난이라고 손가락질 했다.

(2017년 6월 24일에 첫째 언니와의 인터뷰 후
작성한 과거회상노트)

이쯤 되면 그 놈의 엉덩이 이야기는 언제 끝나나 싶을 테다. 주변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화상 흉터로 울긋불긋한 얼굴에 눈물이 범벅되면 사람들은 나를 못난이라 불렀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같은 해, 동생이 태어났다. 바라고 바라던 사내아이였다. 지겹겠지만 내 상처는 그대로였다.

제 3단계에서 어린이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인지하고 타인과 본인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분리/구분으로 자율성을 얻게 되고 스스로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한다[11]. 그러나 자신이 세운 나름의 목표가 사회 규범에 알맞지 않을 때 부모는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는 자신감을 잃고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첫째 언니와의 인터뷰는 심적으로 힘들었다.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았다. 다섯 살의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도 분명 인지했다. 내 엉덩이에 상처가 있다는 것. 아들을 바라는 집의 넷째 딸이라는 것.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예쁘지 않다는 것. 남동생이 태어났다는 것.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이러한 사실들은 내 아이덴티티의 한 부분이 되어있었다. 그나마 위로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이유까지 깨닫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에릭슨은 타인과 본인을 구별함으로써 자율성을 얻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자율성 자체가 제대로 발달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외할머니, 엄마, 세 언니, 그리고 갓난쟁이 남동생의 눈치를 봐야했다. 이를 모두 무릅쓰고 모험을 하기에는 몸이 불편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상처가 덧날까 ‘안 된다’고 했다. 자신감이 생성될 기회조차 없었던 듯싶다. 첫째 언니는 다섯 살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탈은 우리 집 대문 밖을 나서는 것이라 했다.

3.4 제 4단계 : 근면성 대 열등감

다행히 여섯 살이 되면서 상처는 아물었다. 신체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몸은 여전히 허약했다. 이플 때 받았던 가족의 관심이 사라졌다. 그러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다.

첫째 언니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엄마를 따라 발일을 하기 시작했다. 벽에는 동생이 돌 기념으로 모형비행기를 타고 찍은 흑백사진이 걸려있다. 나는 교복이라는 걸 입어볼 수 있을까.

(2017년 11월 15일에 작성한 과거회상노트)

돌 사진은 내가 처음 스스로 느낀 동생과 나의 차이였다. 돌이켜보면 당시 엄마 혼자 떡을 팔아 얼마를 벌였으며, 그 돈으로 60년대에 돌 사진을 찍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과소비였을까, 싶다. 내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을 썼는지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언니는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한글도 깨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수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당연히 열등했다. 엄마는 항상 집에 없었다.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떡을 팔러 시골 장을 돌았다. 머리에 는 이가 있었다.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치였다.

...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나만큼이나 나를 싫어했다. 하루는 반장의 걸레가 없어졌는데 내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계집애가 어디서 말대꾸야. 담임은 내 뺨을 때렸다.

(2017년 11월 27일에 작성한 과거회상노트)

이 시기 나는 선생님을 통해 사회와 학업을 배우고 또래와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근면성과 열등감을 경험해야 했다. 가족구성원을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계를 넓혀서 나아가는데, 이 때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며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할 기회를 박탈,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는 열등감을 갖게 된다. 특히 열등감은 사회나 학교가 어린이를 편견적 시선으로 바라볼 때 발달하기 쉽다[12].

5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곧 탄력을 받았고 자신감이 생겼다. 동시에 사람들이 비웃는 내 삶을 책임져야겠다는 강박관념도 생겼다. 이상했다. 자신감이 생겼는데 여전히 나는 싫었다. 내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2017년 11월 27일에 작성한 과거회상노트)

3.5 제 5단계 :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제 5단계는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 즉 청소년기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심신 모두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겪고 위기에 봉착하지만 지금까지의 심리사회단계를 토대로 이루어진 발달을 종합하여 자신을 정립한다[13].

에릭슨은 이 시기가 제 1단계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제 1단계도, 제 5단계도 썩 좋게 보낸 건 아닌 듯하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다. 오로지 공부만 했다. 그러다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했다. 삶은 전쟁이었다.

(2008년 6월에 작성한 에세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나는 첫째 언니가 가지 못한 중학교를, 둘째 언니가 가지 못한 고등학교를 진학했다. 물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동생을 돌봐야했고, 엄마의 장사를 도와야했다.

가끔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였다. 친구 아버지는 한약방을 하셨다. 책을 붙잡고 있는 나를 보며 빈둥빈둥 노는 친구와 비교하고 칭찬하셨는데,

기쁘지 않았다.

적십자 간호 대학에 떨어졌다. 대신 사립 여대를 붙었다. 등록금이 필요해 엄마에게 말을 꺼내보았다. 여자가 고등학교 나왔으면 됐지. 엄마는 내 옷을 찢었다.

(2018년 2월 13일에 작성한 과거 회상 노트)

내 인생을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던 공부, 내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당한 순간이었다. 가난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며 버텼다. 그런데 내 성별은 바꿀 방법이 없었다. 여자라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었다.

나의 제 1단계를 떠올려본다. 여자라는 이유로 죽을 뻔 했고 그 탓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호년을 버려야했다. 지금의 제 5단계와 비교해보자. 청년기를 모두 바친 결실을 여자라는 이유로 버려야했다. 상처가 가득해 겨우 숨만이 붙어있는 그 느낌. 나는 또 아물기 위해 몇 년을 허비해야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3.6 제 6단계 : 친밀감 대 고립감

동생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했다. 우리 형제 중 유일하게 대학을 갔다. 왜냐. 유일한 남자애였으니까. 그 때의 박탈감이란.

상경 후 2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공장에 취직을 해 주야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생의 생활비를 대줬다. 그나마 나는 나은 편이었다. 둘째 언니는 학비를 대줬다. 동생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위한 인생이 존재하긴 하는가.

(2018년 3월 23일에 작성한 개인성찰일지)

나는 내 삶의 시작을 되돌아보았다.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든 결론은 부정적으로 끝이 났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이는 나밖에 없었다. 여자라고 환대받지 못했고 한 발짝 물러서 있어야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시댁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은 나를 믿어주었다. 나는

남편의 도움으로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 유아교육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유아들, 아동을 이해하고 싶어서였다. 누군가의 딸은 자라 어떤이의 부인이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야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여자로, 부인으로, 엄마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 그리 되었다.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 졸업했다.

...

교육원에서 공부해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다. 너무 힘들어서 올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남편도, 집안 어른들도 나를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봤다. 그 때 뒤집어졌었다면 조금은 더 빨리 편해졌을까. 하지만 나에게에는 힘이 없었다. 대화가 필요했다.

(2018년 3월 23일에 작성한 개인성찰일지)

에릭슨은 이 단계를 설명하며 모순을 보이는데, 마지막 자아는 청소년기의 끝에 정립된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경험을 토대로 성인기에도 유연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14]. Vaillant와 Milofsky는 이 시기를 일과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단계라고 설명한다[15]. 어린이집 초반에 남편은 내 직업을 매우 한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가정’ 어린이집이다 보니 매일 집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일은 일이고, 아침밥을 차려주는 부인은 부인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일에 들이는 시간에 있어서 출발선이 달라야만 했다. 나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일을 멈추는 대신 남편을 설득하는 데에 힘을 썼다.

3.7 제 7단계 : 생산성 대 침체감

Harker와 Solomon은 초기 성인 단계에서 중기 성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성인들은 그들이 삶에서 진정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추구해야 하는지 등 가치와 목표를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16].

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다 했다. 열 몇 살이나 어린 남자애들이 예쁘다 했다는 게 이윽였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본 좋게 웃어넘기라 했더니 엄마는 성희롱을 모른다고 화를 낸다.

어찌 모르랴.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라 했다.

...

후회한다. 책과 현실은 무척이나 다르다. 어린이집에서 가르친 대로만 딸을 대해서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겠지.

(2018년 6월 3일에 작성한 개인성찰일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내 딸이 더 나은 세상을 영위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받을 상처가 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생활이 다 그렇다, 라는 말을 내뱉고 보니 내 유년시절이 떠올랐다. 그 때의 사회는 나에게 사회가 다 그런 거라 말했었다. 나는 딸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나는 그 가치를 변경한 게 아니라, 일부러 무디게 만들어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아프지 않으려 노력했었다.

Kroger는 중년의 나이에도 개인이 자신의 소명과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평가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17]. 어린이집 원장으로, 또 딸을 둔 엄마로, 나, 하나의 여성으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나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쁘다, 남자답다와 같은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단어를 기피하려 하지만, 결국 선생님들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여성들이다 보니 습관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원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기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해 상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딸과의 일처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학부모를 대할 때는 답답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아버지들이 ‘뭐 이렇게까지’식의 반응을 보이면 되레 ‘뭐 이렇게까지 느끼게 받아들이느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생각해본다. 유아를 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양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빨리 최신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려 한다. 이는 모두 내 경험에서 비롯된 집착이기도 하다.

3.8 제 8단계 : 통합감 대 절망감

나는 8단계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다. 백세시대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지금, 여성을 대

하는 사회는 격변했다면 격변했지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빈부격차처럼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격차는 되레 커진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Kroger는 한 연구를 통해 노년에 경험하는 중요한 자아의 절차(변화)는 더 젊었을 때부터 행하는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재정립, 관계에서의 균형 다잡기, 신체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18].

어린이집 아이들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부인을 ‘도와’준다며 뿌듯해하는 아버지. ‘여자가 말이야’로 대화를 시작하는 아버지. 바쁜 아침을 맞이하는 부인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아버지. 육아휴직을 낸 아버지 등등.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딸을 키우는 방법 역시 제각각이다.

나는 언젠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은퇴를 하게 될 것이다. 은퇴를 하면 현직에서 물러나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보면 이 경험을 뜻깊게 되새기겠지만, 아니라면 후회만이 남게 될 것이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 시절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극심한 성차별을 받은 경우 그 트라우마는 온 유아기를 잠식할 만큼 큰 고통을 선사한다. 이는 아이의 발달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을 자행하는 집안 분위기 특성상 부모는 딸인 아이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유아는 부모와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가족 중 자신의 처지를 가장 이해하는 이를 같은 성별인 자매로 인식, 의지한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객식구’로 취급받을 때, 유아는 자신의 의견을 전혀 피력하지 못하는데, 이 때 유아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발달이라기보다 거의 생존에 가까운 몸부림이다. 이것은 타인들의 동정을 사기보다 되레 꾸밈음의 계기가 되기도 하며, 유아를 더욱 고립시킨다.

둘째, 위와 같은 유아기를 보낸 아동은 삶에 대한 의지가 비이상적으로 강해진다. 연구자는 단순히 부모가 원

하는 자식의 성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어난 날 죽을 뻔했고, 이 고비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무의식 속에 내재된 이 경험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연구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언제 무시당할지 모르고 어떠한 방식으로 차별받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과로 변질된다.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남는 방법으로 인지하고 해석하게 된다. 연구자의 경우 ‘가난’이라는 핸디캡이 하나 더 작용하여 돈이 들지 않고 살아남아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즉 공부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언니 사례를 미루어, 학업을 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성차별이 가장 만연하게 퍼져 있는 집안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원인을 완벽히 등지지 않는 한 차별의 굴레는 계속 된다. 흔히 언급되는 ‘집안을 먹여 살리는 형, 누나’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남자가 아니라 떠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연구자를 특히 힘들게 했는데, 유년시절은 그 차별 속에서 꿈이라도 꿀 수 있었다면, 성인기는 그 차이가 너무나도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동생이 대학에서 자신의 건설한 미래를 설계할 때, 연구자는 원하지도 않는 일을 맡기로 하며 동생의 미래를 원조하는 역할을 강제로 해야 했다. 이는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오기로 변형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때 성인은 정신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압박과 고통을 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개인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넷째, 발달한 자아는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관습은 쉽게 버리지 못한다. 성차별을 경험하며 자랐고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구성원 내에서도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학습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동안 체화되어진 관념이 쉬어 잊히지는 않는다. 본 연구자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개인을 넘어 교육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할 정도로 최신 양성평등교육에 참여하고 교육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주변인들과 노력한다. 그러나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새로운 지식과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성차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단계를 토대로 하고 자문화기술지를 방법으로 하여 연구자를 예시로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성차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에릭슨의 여덟 단계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한 개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데에 중점을 두어 자문화기술지를 방법론으로 택한 바, 연구자가 경험한 성차별이 모든 성차별을 대변할 수 없고, 1960년의 시대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차별 경험자의 심리 사회 발달 과정을 모두 대변하거나 담지는 못했다. 또한 에릭슨의 이론이 그 당시 백인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구 역시 또 다른 성차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할 것이라 추측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성차별적 발달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가를 단계별로 솔직하게 보여주려 했다. 이에 각 지역과 연령대가 다른 여성은 비슷한 경험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여타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혹은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단계를 현대 여성의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D. Capps. (1983). *Life Cycle Theory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 Fortress.
- [2] D. S. Lee. (2012). *Autoethnography & qualitative research*. Paju : Academy Press.
- [3] S. Wall. (2008). Easier Said than Done: Writing an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7(1), 38-53.
DOI : 10.1177/160940690800700103
- [4] H. Chang. (2007). *Autoethnography as method*. California : Left Coast Press.
- [5] C. Ellis. (1995). *Final Negotiations*.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 [6] H. Chang. (2007). *Autoethnography as method*. California : Left Coast Press.
- [7] M. Duncan. (2004). Autoethnography: Critical appreciation of an emerging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4), 28-39.
DOI : 10.1177/160940690400300403
- [8] S. J. Lee & B. S. Lee. (2008).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Seoul : Changjisa.

- [9] E. H.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n.* New York : WW Norton & Norton.
- [10] Y. M. Byeon, S. J. Cho, K. H. Kim & J. H. Shin. (2007). *Child Development.* Paju : Yangseowon.
- [11] E. H.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n.* New York : WW Norton & Norton.
- [12] Y. M. Byeon, S. J. Cho, K. H. Kim & J. H. Shin. (2007). *Child Development.* Paju : Yangseowon.
- [13] K. S. Choi & H. N. Song. (2010). *Developmental Psychology.* Paju : Kyomunsa.
- [14] J. T. Sokol. (2009). Identity Development Throughout the lifetime: An Examination of Eriksonian Theory. *Gradu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Article 14.
- [15] G. E. Vaillant, & E. Milofsky. (1980).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IX. Empirical evidence for Erikson's model of the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48-1359.
DOI : 10.1176/ajp.137.11.1348
- [16] L. Harker, & M. Solomon. (1996). Change in goals and values of men and women from early to mature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3*, 133-143.
DOI : 10.1007/BF02285774
- [17] J. Kroger. (2007). *Identity development: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 [18] J. Kroger. (2002). Identity processes and contents through the years of late adulthood. *Identity, 2(1)*, 81-99.
DOI : 10.1207/S1532706XID0201_05

김 옥 경(Kim, Ok Gyeong)

[정회원]



- 2010년 8월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5년 2월 : 안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수료
- 관심분야 : 교육학
- E-Mail : lovekid1198@hanmail.net

윤 은 숙(Yoon, Eun Suk)

[정회원]



- 2015년 2월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사
- 2017년 11월 : University of Surrey Creative Writing 석사
- 관심분야 : 문예, 소설
- E-Mail : julietteun@gmail.com